

# 제 12 회 중국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 - CNS0367

한글 성명: 김향숙

젊음은 계속된다.  
 누군가가 그랬다. "젊음이란 자기  
 면면에 걸맞는 청춘을 매번 창조하는  
 것" 이라고, 그리고 나도 이 말에 크나  
 큰 공감을 했다. 자신의 마음에 어떤  
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젊음의 열매는  
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가 걸어가는데  
 발자국마다에 크나큰 기쁨을 줄<sup>Y</sup> 것이다.  
 누군가 나에게 젊음이 언제 끝나냐고  
 물어볼 때면 나는 단 한 번도 젊음은 계속  
 된다고 답할<sup>Y</sup> 것이다.  
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트로트 예  
 능 프로그램은 즐겨 보곤 한다. 세월이  
 거기에 나오시는 머르신들에게 60 번째,  
 70 번째 뽕을 선사하였지만 머르신들 마  
 음은 지속되는 뽕내음으로 여전히 소년  
 의 순수함과 밝은 에너지가 풍겨난다.  
 인생이란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시련도,  
 어려움도, 갖가지 풍상고초와 쓴맛을 다  
 맛보았을 분들이지만 그들이 그다지도

# 제 12 회      중 국     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 - CNS0367

한글 성명: 김향숙.

밝고      열정적 이 게      지 별 수      있 었 던      원 인 은  
 무 뭇 이      있 을 가 ?      아 마 드      세 월 이      후 러 드  
 그 들 의      청 춘 은      여 전 히      전 행 중 이 고      름 음  
 의      씨 밭 은      여 전 히      가 속 속 에 서      싹 트 우 고  
 있 기      때 문 일      것 이 다 .      좋 아 하 는      가 수 가  
 나 오 명      부 등 켜      끌 어 안 고 ,      여 름 아 미 처 켜  
 춤 추 고      반 가 움 의      눈 물 을      보 이 는 것 ,      감 정  
 에      솔 직 한      그 의      모 습 은      우 리 의      " 름 음"  
 과      다 를 바      났 다 .  
 연 세 가      70 되 시 는      우 리      할 머 니 는      여  
 전 히      발 뭇 을      하 러      다 니 신 다 ,      장 시 간      허  
 기 속 으 러      하 시 는      밭 이 라      자 식 들 과      손 너 까  
 지      나 서 서      말 리 지 만      오 히 러      아 무 것 도  
 하 지 않 으 면      더      불 편 하 다 고      말 하 시 는      할  
 머 니 사 다 .      다 리 가      편 찰 으 셔 서      걷 는 것 도  
 숨 차 하 시 면 서      지 रु 이      아 니 면      나 글 메 는  
 정 말      못      할 것      같 다 고      노 래 교 실 도      다 니  
 시 는      할 머 니 사 다 .      아 마      할 머 니 의      아 웃 속  
 메 는      날 아 가 는      오 늘      가 장      름 음 날 이 고  
 무 뭇 을      시 작 해 드      가 장      늦 기 많 은      나 날 일

# 제 12 회 중국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 - CNS0367

한글 성명: 김향숙

것 이 다 . 언 제 나 힘 을 내 서 도전 하는 그  
 의 모습 은 우리 의 " 젊 음 " 과 다름 바  
 났 다 .  
 항 혼 을 바 라 보 는 나 이 밍 에 도 여 전 히  
 친구 들 과 모 이 면 갸 갸 갸 배 곯 어 만 근  
 이 야 기 꽃 을 피 우 시 는 할 머 니 , 아 침 일 직  
 할 아 버 지 의 기 나 를 쟁 겨 드 리 고 뒀 으 세  
 쥔 돈 한 버 텀 목 이 되 어 주 시 는 할 머 니 . 자  
 식 이 잘 되 기 를 , 우리 가 족 평 안 하 기 를  
 늘 기 도 하 시 고 사 랑 으 로 감 사 주 는 그 의  
 모습 은 우리 의 " 젊 음 " 과 다름 바 났 다  
 누 구 나 노 년 을 언 급 하 고 노 후 에 대  
 해 계 획 하 고 생 각 하 지 만 아 무 도 자 신 이  
 늙 어 가 는 것 을 바 라 고 소 망 하 지 는 않 는 다 .  
 20 대 의 우리 는 취 업 의 문턱 앞 에 자 신 의  
 " 나 이 들 " 에 대 해 실 망 할 것 이 고 30 대  
 의 우리 는 생 계 의 압박 과 책 임 감 에 자  
 신 의 나 이 를 돌 아 볼 것 이 며 40 대 의 우  
 리 는 세 로 우 시 도 를 망설 이 는 자 신 을  
 보 며 야 속 한 시 간 을 원 망 할 것 이 다 . 하



## 제 12 회      중 국     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 - CNS0367

한글 성명: 김향숙

[illegible]